

동경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차세대 인문학 육성프로그램에 의한 해외파견  
 귀국보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짜 2011년 9월 21일

파견생의 기본정보

츠도 아유미 한국조선문화연구전공, 개인파견(PD)

연구 주제

대한제국기 일본인관료 임면이력데이터베이스 확충을 위한 자료수집·분석

현지에서의 활동

(1) 현지의 기본정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 체재 기간

2011년 7월 10일 출발 9월 10일 귀국 체재기간 62일

주요 연구성과

(1) 연구계획의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한제국이 고빙(雇聘)한 일본인에 대한 상황 파악이다. 일본에서 비교적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자료로는 『대한제국관보』 및 『통감부(統監府)공보』(관보에 상당)가 있다. 그러나 이들 자료에서는 임면 및 발령의 상황밖에 확인할 수 없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대한제국기 관료들의 자필이력서를 소장하고 있다(아래 표 참조). 한국에서는 이 자료가 『대한제국관원이력서』(국사편찬위원회, 1972년, 영인판)로 간행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일본인관료들의 이력서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일본인관료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려고 하면 원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직접 가서 마이크로필름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을 하나씩 복사해야 한다.

이번 작업에서는 합계 44 권 이력서철에서 일본인관료에 관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奎章閣韓國學研究院所藏 履歷書綴群一覽】

『內閣判任官以上履歷書』 1冊 (請求記号: 奎18002-1)	『履歷書』 1冊 (請求記号: 奎18002-2)	『履歷書』 1冊 (請求記号: 奎18002-3)
『各官履歷書存案』 1冊 (請求記号: 奎18002-4)	『履歷書』 1 3冊 (請求記号: 奎18002-5)	『履歷書』 1 7冊 (請求記号: 奎18002-6)
『度支部勅奏判任官履歷書』 1冊 (請求記号: 奎20656)	『警務庁官員履歷書』 1冊 (請求記号: 奎20713)	『内部官員履歷書』 1冊 (請求記号: 奎20714)
『学部職員履歷書』 1冊 (請求記号: 奎20715)	『農商工部本庁勅奏任官履歷書』 1 冊 (請求記号: 奎20716)	『外部官員履歷書』 1冊 (請求記号: 奎20657)
『履歷書』 3冊 (請求記号: 奎25072)	『履歷書』 1冊 (請求記号: 奎26209)	『日本人履歷書』 1冊 (請求記号: 奎20663)

## (2) 실제로 달성된 성과

### 1. 일본인관료 이력서추출

① 「이력서철 (履歷書綴)」에서 57명 분의 이력서를 추출하여 해당 부분을 복사했다.

잔존하고 있는 이력서는 度支部(일본 대장성[大藏省]에 상당), 法部 (일본 사법성에 상당)에 고빙된 기술계 관료가 다수를 차지한다.

또 내각에 설치된 법전조사국(法典調査局.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법전편찬사업을 관장) 소속 관리들의 이력서를 복사했다. 법전조사국에 관해서는 이력서뿐만 아니라 각과 분장(各課分掌)에 관한 자료도 하나로 묶여 있어 기구 파악에 도움이 될 정보도 얻었다.

②당초 예정하고 있던 「이력서철」뿐만 아니라 각종문서(『奏本』, 『奏本存案』, 『起案』, 『學部去來文』, 『宮內府案』) 등을 열람하여, 일본인을 비롯한 외국인 고빙에 관한 문서 왕래를 확인하고 문서에 첨부된 이력정보도 입수했다.

### 2. 대한제국 관료기구의 파악

「이력서철」군 전체를 열람·조사한 덕분에 조선인 과장급 이상 직위 경험자에 관한 정보 수집(직위 경력 데이터 입력 작업)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다.

약 3000 명의 이력서에서 얻은 정보는 조선 말부터 대한제국기에 걸친 관료기구변천을 알아낼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 (3) 향후 연구 전망

과건 이전의 사전작업으로서 『대한제국관보』를 이용하여 관료기구를 부분적으로 복원해 왔지만, 그것을 이번 조사로 얻은 인사기록 정보와 대조 확인하면서 기구변천의 과정 및 시기를 확정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대한제국기 일본인 관료기구인사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되면, ①관료개인의 공직이력, ②직위별 역임자, ③특정 시점에서의 관료기구 구성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작성은 보고자의 경성제국대학 연구를 진척시키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식민지관료연구 분야에 대한 기여, 특히 한일합방 전후의 조선총독부관료군 형성에 관한 새로운 견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